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출력일: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20호

서기 2001년 5월 30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몸 따르면 노예 자성 따르면 자유인

우리가 항상 마음공부를 하고 가고 또 이끌어 간다고는 하나 근본의 모든 것을 몰라서 행하지 못하고 사람이 죽어 가는 날만 생각하면서, 생각하지 않아도 곁에서 이렇게 살고 있죠.



그것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우리가 급하고 또 급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되리 만큼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개가 땅에 떨어지고 땅을 한없이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하냐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공부를 하고 인하고, 이렇게 가는 이 모두, 삼천대천세계의 우리 마음들이 말입니다. 이 중세계라는 것은 그냥 자유통계 살아가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위에 안 찢기고 피가 안 난다 해서 아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픔을 당하면서 마찰이 돼서 돌아가는 형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만이 우리가 리드가 되면서 또 지하로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도 그렇게 하고 가기 때문입니다. 참 이런 걸 생각하면은 생사를 두고 그 가운데를 볼 때에 참 축한 일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세로 하나하나가 법망

이런 것을 모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만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삼십년 만에 한 번씩은 초파일 이 다텔 초 칠일이 되면 관찰을 합니다. 어디서 관찰을 하느냐. 이 지구에도 법망이 있고 북극에도 법망이 있습니다. 우리들한테도 법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이러겠지만 이 법망을 좇아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왕천 이렇게 하죠. 사왕천이라는 거는 사는 뼈 놓고 즉 말하자면 숫자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사왕천 하면 동서가 되죠. 사왕천을 한데 합치면은 원식이 되고 이것이 여러 마디로,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이 원식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런데 사왕천이 관찰을 한다 이라는 거는 바로 원식전에서 관찰을 한다, 관찰을 해서 어디로 속해 가느냐. 그것은 즉 말하자면 이 지구의 법망을 좇아서 북극으로 아예 법망이, 법이 통한다 말입니다. 북극으로 통하면 즉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즉 북두칠성으로, 예를 들어서 북두칠성으로 가려면 은하계로 돌아서 우주까지 이렇게, 일론 말하자면 그렇게 된단 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찰을 하면은 그것은 누가 다루느냐, 지금 현실에 법관이 있죠. 현실 법에도 검사가 판단을 하듯이 33천에 부처님께서 검증을 한다. 33천의 보살들이 검증을 해서 추천을 해 올리는 겁니다. 그때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삼십 년만 한 번씩 있는 그때가 참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네들의 추천이 아니라면 우리는 항상 지수회통의 몸을 받아 가지고 살며 끌려 다니면서 아픔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벗어나서 큰 에너지의 모습으로 화할 때 아픈 것도 모르고 또는 자기가 자유통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기 아주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 하나 하나가 다 법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직을 시켜달라고 돈을 갖다 줬는데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아무도 없는데 받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있고 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허공도 있지 않느냐. 이러거든요. 그와 같이 내가 벌써, 내 마음에서 알게 되면은 전체 세포에서 다 알게 되죠. 세포에서 알게 되면 세포로 통하는 데로 다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왕천으로 다 들어가게 되었죠. 사왕천이라는 거는 이 지구의 법망입니다. 지구도 법망이 있죠. 지구의 법망에

서 직접적으로 북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왜 북극을 통하느냐 하면 바다도 북극에서 다 관리가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바다의 법망, 법도 역시 북극에 상응이 되었으니까. 거기서 직접 올라가니까 말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는 문제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약하게 쓰지 않아도 한 생 살고, 약하게 써도 한 생 사는 것이니 좀 좋게 살면 어떻습니까. 좀 좋게 생각하고 살면 어떻습니까. 자유스럽게 마음을 쓰라고 사람으로 내뱉는데 사람이란 마음이 나쁘게 나오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 생각을 하면 좋은 텐데 이거는 나오는 대로 그냥 내뱉어버리는 거예요. 조금을 참지 못하고, 나오면 안에서 좀 제압을 해서 참고 생각을 해서 던지는 게 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막 나오는 대로 생각을 해서 말하는 것이, 잘 말하는 게 한 생각이요. 그냥 생각나오는 대로 욕하고 내뱉고 화내고 이러는 게 바로 중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웃어가면서 해야 웃을지 울어가면서 해야 울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우리는 마음을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그렇게 모두 보는 데가 있고 듣는 데가 있고 위로 올라가고 하천으로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매일 자기가 관찰하고 자기 자성이 자기를 관찰하고 이러는 겁니다. 자기 몸통이에 끌려 다니지 마세요. 몸통이에 끌려 다니면 몸통이의 노예가 되고 자기 자성에 끌려 다니면 바로 중생이 됩니다. 이거는 자기 몸통이에 평생 끌려 다니다가 버리고 가요. 몸통이에 다 충성하다 보면 애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바로 내 종이라는 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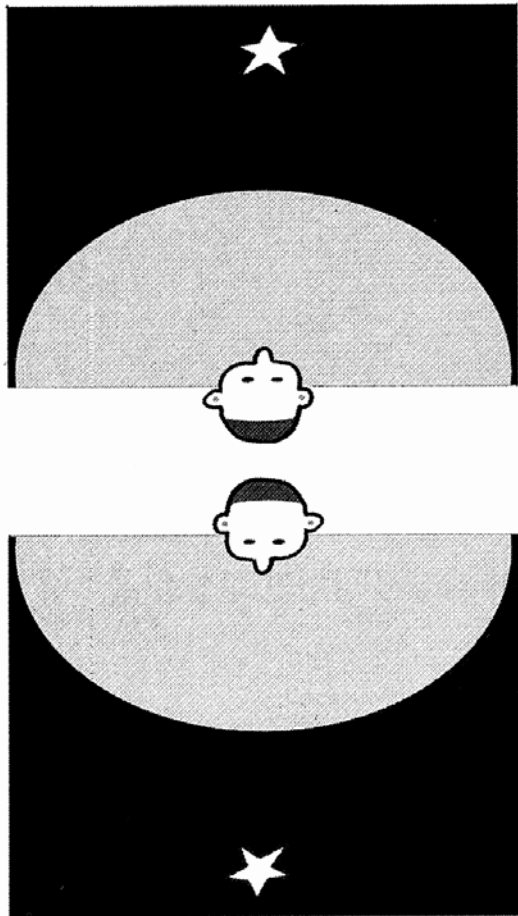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는데 이 인간 중에도 정말 인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인간, 진짜 인간이 된 인간. 인간에서도 더 차원이 올라가서 정말 인간. 관찰을 하면 다 알게 돼요. 솔살피 나오게 돼있거든. 내가 아니다 기다 할 것 없이 말입니다. 그럼 등수가 매겨지게 돼. 차례 차례로. 차원대로 등수가 돼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그냥 간략하게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냥 넓은 곳에 촛불이 딱 차게 켜져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구경하러 들어가니까 가느다란 촛불에다가 켜진 거 굵은데다가 켜진 촛불 또 다 많은 촛불이 늘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세히 물어 봤대요. 이 초는 어째서 가느냐. 너희들 마음이 가느냐. 가늘지, 이전 아주 마음이 가난해서 몸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야. 이 촛불은 왜 이렇게 다 굵았습니까. 이제 들어올 때가 돼서, 굵은 촛불을 들어보니까 이 굵은 촛불은 항상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생이 없기에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촛불을 은하계의 별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아주 가상사리로는 보이지도 않는 별들이 있어요. 중간쯤 되면은 좀 편찮죠. 가운데쯤으로 들어가면 커요. 더 가운데로 가면 더 큰 별이 돼있고요. 근데 근데 가상사리로는 희어진 별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별들이 많죠. 그리고 은하계도 다 다르죠. 은하계도 생명들이 많은 은하계들은 크고 생명들이 적은 은하계들은 적고 또 축성의 생명들이 있는 은하계들은 또 다르고 은하계도 뭐 이루지 못할 은하계들이 많지만 우주도 많고 은하계도 많고 그렇지만 그게 다 생명들이 살려면, 내

'한 생각' 좋게 돌리면 '보살'

마구 욕 내뱉고 화내면 '중생'

기죠. 일론 쉽게 말해서 내 자성신의 중이죠. 중으로 생각해야 좀 보살과 줄 수도 있고 아프면 낫게 할 수도 있고 언짢으면 좋게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노예가 돼서 끌려 다니지 말라 이 소입니다. 좀 어른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러죠. 이 세상에 아무리 권리가 있고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죽었을 때 보면 거저를 쓰고 죽은 놈이나 좋은 관속에 들어가서 죽은 놈이나 죽은 건 똑 같습니다. 그 애절한 거는 똑 같아요. 모습이야 없어지면 물로 가고 흙으로 가고 바람으로 가고 불로 가면 그 뿐이지만은 마음의 근본은 없어질래 없어질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라는 집도 벗어나야 한다. 노예로 내 몸이 괴랄하지 않으면 바로 그 몸에서 바로 자기 마음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처럼 학으로 잘 배우고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떠들떠들 하더라도 진실한 것만은 틀림없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만약에 글이 좋은 사람이라면 거짓말도 거기 보태겠지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아닌 말도 할 게 너무 많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병원에서 보이면 호흡이 제대로 안되면 산소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소보다도 더 강한 질소가 없잖습니까. 수소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 생각했지 그 수소로다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하는 생각들은 안하죠.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만이 해결이 잘 되나, 이 중세계에서 모든 생명들이 다 증발해야 되요. 우리가 전부 증발을 하든지 불국

토가 되든지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철 사는 거 마구 살아가는 안된다는 거죠. 마구 살아가는 안된다. 이 모습이 몇 알갱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찰한다, 사왕천에서 관찰을 해서 또는 원심천으로 가게 되면은 삼십 삼천이 모두 검증을 해야 하고 모두 검증을 해서 북극성으로 올라가면 또 다시 다른 축성으로 가고 즉 말하자면 우리를 관리하는 북두칠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생명을 관리해 줘. 그러고 은하계의 별성들은 우리 마음의 근본과 같이 상응이 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편리하게 자유통계 사는 분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앞길만 보고 가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이렇게 살면서도 지구가 큰 덩어리의 집이라고 하지만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걸으면서 알지 속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시죠. 내 집에서 살면서도 내 집 하나 제대로 모르고, 이거 보세요. 내 몸통이 집에서 살면서도 내 집 하나 제대로 못 가난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어떤 스님이 잘하느니 못하느니 알기알부 할 일도 아닙니다. 지금 옆도 보지 말고 그냥 자기 길만 뚝뚝뚝 가도 먼 길입니다. 우리가 깨우치면 한 할나이지만 깨우치지 못하면 먼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이 지구라는 집 속을 모르니까 나도 말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얘긴 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해서 잘 하면은 내

내몸은 없어지면 4대로 화하나 마음 근본은 없어질 수 없는 종자

집 내용도 알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어떠한 요소가 결부 돼서 지구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을까.

또 어떻게 돼서 지구가 움직거리고 있을까. 때로는 북극성이 남극성이 되고 남극이 북이 되고 북극성이 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 이거 한번들 생각해 보셨어요? 즉 북극성이 북극성대로 그냥 있지 않고 남극이 남극대로 그냥 있지 않아요. 남극이 북으로 뺏다가 북이 남극으로 뺏다가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요 그 역할을 그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 마디 했다 하면 벌써 일초전이 과거예요. 일초 후가 미래고. 지금 말하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찰나찰나 그렇게 회해서 돌아가는데 어떠한 것을 글자로 꼭 찍어서 요건 요랑다 써놓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도.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는 데.

그러니까 지구는 이렇게 생겼다고 써놓을 수도 없는 거죠. 변경을 시켜서 지구 그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인간도 살아가면서, 보세요. 애 적 다르고 조금 자라서 상황이 다르고 조금 더 자라서 상황이 다르고 조금 젊어서 상황이 다르고 아주 늙어지면 또 다르고 더 아주 늙어지면 더 달라지고 아예 죽어버리고. 그런데 죽는 게 죽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극적으로 내가 이전 죽는 날이 바로 이날이다 하고 있을 때에 절절 웃을 수 있었습니까? 웃을 수 있다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웃을 수 있을까 말입니다. 인생이 찰나니까,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이 하등, 내가 진짜 인생을 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해서 인간까지 올라왔

가 그래요. 살려면 태양도 만들어야 하고 태양을 누가 가져 만들니까. 태양도 태양대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규정이 있고 그러니까 광창도 되지 않고 타버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또 우리 생명체가 있으니까 달도 있는 거고 해나 달이나 동시에 돼있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 지구에만 그렇게 있느냐. 지구에만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죠.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사는 게 있고 차면 찬대로 사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고 달이 있고 태양을 만들어서 쓰죠. 캄캄하면 전기하나 더 만들면 환하듯이 그런 역할밖에 안돼요. 우리가 지금 그것도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잘 이렇게, 관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록 태양도 알고 다 알아요.

그냥 에너지 자체가 우리 산 사람과 같으니까요. 에너지 자체가, 수소자재라든가 헬륨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냥 살아있는 우리네 마음과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러고 그것도 모르고 죽었잖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 탓입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서 천도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은 그냥 관하라고만 일러주죠. 관하는 것만 열심히 하다가 돈 생기면 해드리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요. 남의 돈 빌려다가 천도재 하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고통을 자꾸 만드는 거니까. 만약에 빌려다가 해서 그걸 갖지 못하고 애통지탄하면은 그 조상들이 편안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빚을 지고 천도재를 하지 마

그러나 날더러 이상한 소리한다고 할 수가 없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몸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부모 아닌 것도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아닌 것도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다시 나와야겠다 들어 가야겠다 없느니라. 생이 없기 때문에 사도 없다. 지금 그냥 한 가정에서 모두 그저 자식들이 나가서 안 들어와도 걱정, 공부 못해도 걱정, 아프다고 걱정, 그냥 뭐 걱정 투성이죠. 그런데 그게 본래 이 중세계에서는 그렇게 돼서 살아 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속속이지 마라 이거죠. 그렇게 착을 두고 애통 쓰지 말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물같이 살고 산같이 묵묵히 살고 바람같이 살아가 이거죠.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바람같이 살고 있어요. 공해서요. 하나나 그냥 있는 게 아니요. 어디.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기 가면 저기 가야하고, 항상 말하죠.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 하면 아버지 노릇하고 여보 하면 남편 노릇하고 애, 아무개 야 그러면 아들 노릇해야 하고 형 하면 형 노릇하고 이걸 고정되게 그냥 놔두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한 게 뭐가 공했느냐. 이거 의심을 할 수도 없죠. 그냥 공해서 나투면서 화해서, 공해서 화해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이렇게 화하니 그냥 그걸 뭉개고 공했다고 하나 이러지도 말아야죠. 그걸 열면, 아, 사람이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뭉개고 공했다고 하나. 그래서 내가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이랬잖아요. 내가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더불어 같이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허허허.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세세 통통이 벌레까지도 연결이 됐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오장육부에도 넣고 있어요. 전부 연결이 돼있어요. 하나같이. 혼자 아니예요.

그러나 이 사연들을 여러분이 아시려면, 이 한생에 알고 넘어 갈려면 오직 그렇게 그냥 미치도록 열이 나도록 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하늘이 무너진다 한다면, 토끼가 상수리가 떨어져서 막 떨어지다가 튀지 말고 침착하게 그냥, 하늘이 무너지든지 상수리가 떨어지든지 돌맹이가 떨어지든지 너 알아서 해라 그리고는 어차피 한번 죽을 거 죽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처형 받아서 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깔깔 웃으면서 이제는 내 몸에서 벗어났구나 이라고 웃더라고요. 하하. 그 안에서 아야 그냥 통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복으로 믿는 것을 폐지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그림자 내 형태의 노예가 되지 마라. 네 몸의 노예가 되지 말고 몸을 중심으로 알아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런 거죠.

아프면 만져주고 약도 사다 먹고 열이나 사랑해요. 일생을 같이 사는데 말입니다. 이거는 자식기간이나 부부기간보다도 더 애똥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되 집착하고 노예가 되지 마라 이 소리죠. 정말 눈물나는 일이지요. 나를 따라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하고 심부름을 하면서 몸이 아프면 되겠다 하면서 만져주는 그 알뜰한 사랑 거그러고 고만이지 거기 노예가 돼서 좇아 다니는 절대로 안되요. 자식도 부모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예요. 사랑을 하되 집착을 하지 마라 이거죠.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어요.

또 내가 어떤 말을 꼭 한마디하고 싶은데요. 가난한 사람이든 돈 있는 사람이든 천도재를 지냅니다. 천도재를 지내는 데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천도재를 금방 지내야 할 조상님이 있다 하더라도 조상이 자기 자식을 좀 자식으로 알고 죽었으면 될 건데 그것도 모르고 죽었잖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 탓입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서 천도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은 그냥 관하라고만 일러주죠. 관하는 것만 열심히 하다가 돈 생기면 해드리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요. 남의 돈 빌려다가 천도재 하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고통을 자꾸 만드는 거니까. 만약에 빌려다가 해서 그걸 갖지 못하고 애통지탄하면은 그 조상들이 편안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빚을 지고 천도재를 하지 마